



호쿠사이 가츠시카, <후지산이 보이는 가지카자와>, 1830년 무렵, 기메국립아시아미술관

## 목차

공지사항.....	건강심리학회회칙 개정 안내 수련세칙 개정 안내 JAMS 가입 안내 제 50차 춘계학술대회 구두/포스터 발표 증명서 발급 안내
학회소식.....	제 50차 춘계 학술대회 마음챙김-긍정심리 연구회 월례회
회원투고.....	단편소설 「간첩신고」(이현신 / 삼육대학교 웰빙건강심리연구소)
회원동정.....	김정애 회원 보건의 날 유공자 표창

# 공지사항

## (1) 건강심리학회 회칙 개정 안내

### ▶ 정회원과 준회원 요건 강화

개정 전	개정 후
<p>(1) 정회원</p> <p>① 일반 및 심리학 관련 전문대학원에서 심리학을 전공하여 석사 학위를 취득한 분</p> <p>② 대학에서 심리학을 전공하고 입회 5년차 이상인 정회원 2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분</p> <p>③ 일반대학원에서 심리학과와 인접 또는 관련된 학문을 전공하고 이사회의 인준을 얻은 분</p> <p>④ 특수대학원 졸업자로서 입회 5년차 이상인 정회원 2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분</p>	<p>(1) 정회원</p> <p>① 일반 및 심리학 관련 전문대학원에서 심리학을 전공하여 <b>석사 학위 취득 이상</b>인 분</p> <p>② 대학에서 심리학을 전공하고 입회 5년차 이상인 정회원 2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분</p> <p>③ 일반대학원에서 심리학과와 인접 또는 관련된 학문을 전공하고 이사회의 인준을 얻은 분</p> <p>④ 특수대학원 졸업자로서 입회 5년차 이상인 정회원 2인 이상의 추천을 받으신 분</p>
<p>(3) 준회원</p> <p>① 대학원에서 심리학 석사과정을 이수중인 분</p> <p>② 대학원에서 심리학과와 인접 또는 관련된 학과의 석사 과정을 이수중인 분</p> <p>③ 심리학과 관련 있는 업무 또는 연구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분</p> <p>④ 대학에서 심리학 또는 심리학으로 간주할 수 있는 전공을 이수 중이거나 이수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분</p>	<p>(3) 준회원</p> <p>① 대학원에서 <b>심리학 석사학위 혹은 박사학위 과정을 이수중인 분</b></p> <p>② 대학원에서 심리학과와 인접 또는 관련된 학과의 <b>석사학위 혹은 박사학위 과정을 이수중인 분</b></p> <p>③ 심리학과 관련 있는 업무 또는 연구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분</p> <p>④ 대학에서 심리학 또는 심리학으로 간주할 수 있는 전공을 이수 중이거나 이수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분</p>

## (2) 자격시험 시행세칙 및 수련과정 시행세칙 개정 안내

### ▶ 심리검사 종류별 수련인정시간 지정-제 8조 1-(1)항 '아래 표'에 해당

<p>▪ 심리평가 시간 인정 기준</p> <p>기본적으로 평가 보고서를 작성하고, 진단적인 언급이 포함되는 경우에 심리평가로 인정함. 단일검사를 시행할 수는 있지만, 이 때 MMPI, PAI를 제외한 자기보고질문지만을 사용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음.</p> <p>- 종합건강심리평가(지능평가 + 성격평가 + 기타 인지기능 평가) : 최대 10시간</p> <p>- 종합신경심리평가(지능, 주의력, 기억력, 전두엽기능, 언어능력, 운동능력 평가) : 최대 10시간</p> <p>- 성격평가[객관적 심리검사(MMPI-2, PAI) + 투사적 심리검사(성인-Rorschach, TAT 청소년- HTP) + 기타 자기보고질문] : 5시간</p> <p>- 신경심리평가(SNSB or K-DRS or CERAD-K) : 4시간</p> <p>- 지능평가 : 3시간</p> <p>- Rorschach or TAT : 3시간</p> <p>- HTP : 2시간</p> <p>- MMPI (MMPI-2, MMPI-A) or PAI : 2시간</p> <p>- SMS : 1시간</p> <p>- BGT : 1시간</p> <p>- 문장완성검사 : 1시간</p> <p>- 기타 자기보고 질문지 : 1시간</p> <p>- 기타 : 행동평가, 진단면접평가 (인정시간은 수련위원회 결정에 따름)</p>
---

# 공지사항

## (2) 자격시험 시행세칙 및 수련과정 시행세칙 개정 안내 - 계속

개정 전	개정 후
<p>제 5조 (응시자격)</p> <p>1. 필기시험: 건강심리전문가 수련과정에 등록된 후 1년이 경과한 자</p> <p>2. 면접시험: 필기시험에서 필수과목과 선택 과목 모두 합격한 자</p>	<p>제 5조 (응시자격)</p> <p>1. 필기시험: 건강심리전문가 수련과정에 등록된 후 1년이 경과한 자</p> <p>2. 면접시험: 자격규정 회칙 5조 1항에 속한 경우,  <b>- 필기시험에서 필수과목과 선택 과목 모두 합격한 자</b>  <b>- 정해진 수련시간을 충족한 자</b>  <b>자격규정 회칙 5조 2항과 3항에 속한 경우,</b>  <b>- 건강심리학회에 2년간 정회원으로 등록되어 있고 그동안의 회비가 모두 완납된 자.</b>  <b>- 건강심리학회에 30시간 이상 참여한 자 또는 건강심리학회 학술대회, 워크샵, 심포지움에서 2회 이상 강의를 한 자.</b></p>
<p>제 8조(수련과정의 세부내용 및 평가절차) 1-(1)항</p> <p>건강심리평가는 300시간(50레)이상이며, 이중 종합평가를 25레 이상으로 한다.(단, 박사과정 중에 수련을 시작한 경우는 200시간(30레) 이상이며 이중 종합평가를 15레 이상,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에 수련을 시작한 경우는 150시간(20레) 이상이며 이중 종합평가를 10레 이상으로 한다.) 이때 종합평가라 함은 한 사례에 대해서 4종류 이상의 검사 실시 및 5시간 이상의 평가서 작성 시간이 포함된 사례를 말하며, 각 평가별 인정 시간은 실제 검사에 소요된 시간 + 평가서 작성 시간 또는 수련감독자가 인정한 시간으로, 이를 수련위원회에서 평가 받는다.</p>	<p>제 8조(수련과정의 세부내용 및 평가절차) 1-(1)항</p> <p>건강심리평가는 300시간(50레)이상이며, 이중 종합평가를 25레 이상으로 한다.(단, 박사과정 중에 수련을 시작한 경우는 200시간(30레) 이상이며 이중 종합평가를 15레 이상,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에 수련을 시작한 경우는 150시간(20레) 이상이며 이중 종합평가를 10레 이상으로 한다.) 이때 종합평가라 함은 한 사례에 대해서 4종류 이상의 검사 실시 및 5시간 이상의 평가서 작성 시간이 포함된 사례를 말하며, <b>검사인정 시간은 아래표를 기준으로 한다.</b>  <b>아래 표에 없는 심리검사의 경우, 평가별 인정 시간은 실제 검사에 소요된 시간 + 평가서 작성 시간 또는 수련감독자가 인정한 시간으로, 이를 수련위원회에서 평가 받는다.</b></p>
<p>제 8 조(수련과정의 세부내용 및 평가절차)</p> <p>전문가 수련과정의 세부내용 및 평가절차 다음과 같다.</p> <p>1. 수련과정의 세부 내용: 수련과정 동안 아래의 내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p> <p>(5) 한국심리학회에서 발간하는 학회지에 논문을 1편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논문은 수련 감독자 혹은 그가 위촉한 자의 지도하에 수행한 논문이어야 하며, 제 1저자 또는 교신저자 이어야 한다. 단, 석/박사 학위논문은 반드시 아래에 명시된 학술지에 게재될 경우에만 인정된다. 국내의 경우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또는 건강심리학 인접 분야의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또는 등재후보지가 인정되며 국외의 경우 SCI, SCIE, SSCI, A&amp;HCI, SCOPUS DB 등에 등재된 논문이 인정된다.</p>	<p>제 8 조(수련과정의 세부내용 및 평가절차)</p> <p>전문가 수련과정의 세부내용 및 평가절차 다음과 같다.</p> <p>1. 수련과정의 세부 내용: 수련과정 동안 아래의 내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p> <p>(5) 국내의 경우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또는 건강심리학 인접 분야의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또는 등재후보지에 논문을 1편 이상 게재해야 한다. 그리고 국외의 경우 SCI, SCIE, SSCI, A&amp;HCI, SCOPUS DB 등에 등재된 논문을 1편 이상을 게재하여야 한다. 게재된 논문에서 제 1저자 또는 교신저자 이어야 한다.  <b>논문은 건강심리에 관련된 주제여야 하며 이는 수련위원회에서 판단한다.</b></p>
<p>제 8 조(수련과정의 세부내용 및 평가절차)</p> <p>2. 수련과정 평가 및 인정</p> <p>2) 학술회의 참석 연수시간의 인정</p> <p>(4) 월례집담회, Workshop, 연수교육, 공동교육, 심포지움, 학술대회, 세미나의 참가는 실시시간을 인정한다. 그 외의 건강심리학회 주관의 학술회의 및 사례는 연구와 관련 전문학회 주관의 학술회의에 대한 평점 인정여부와 평점을 학회에서 별도의 기준을 정하기 이전에는 지도 전문가의 판단에 따른다.</p>	<p>제 8 조(수련과정의 세부내용 및 평가절차)</p> <p>2. 수련과정 평가 및 인정</p> <p>2) 학술회의 참석 연수시간의 인정</p> <p>(4) <b>건강심리학회 주관의</b> 월례집담회, Workshop, 연수교육, 공동교육, 심포지움, 학술대회, 세미나의 참가는 실시시간을 인정한다. 타 학회의 학술대회에서의 수련시간은 <b>주제가 건강심리와 관련된 주제이며 강사가 건강심리전문가일 경우, 해당 연수시간을 실시시간으로 인정한다. 주제가 건강심리와 관련된 주제이지만 강사가 건강심리전문가가 아닐 경우에는 해당 연수시간의 50%만 인정하도록 한다. 연수시간은 해당 학회의 사전 요청이 있을 경우에 인정된다. 해당 주제가 건강심리와 관련된 주제인가는 수련위원회에서 판단하며 연수평점표에 건강심리전문가 평점인정시간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만 인정한다.</b></p>

## 공지사항

### (3) JAMS(Journal & Article Management System) 2.0 가입 안내

2015년 6월 시범운영을 거친 후, 모든 논문 투고 접수 및 평가 절차에 JAMS 2.0을 이용하게 됩니다.

- 심사위원의 가입이 선행되어야 하오니 특히 심사위원께서는 가입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입 및 이용 방법은 전체회원공지 메일 내용을 참고하십시오.

현재 한국건강심리학회 JAMS 2.0 <https://khpa.jams.or.kr>이 시범 운영중입니다(투고 및 심사 가능 시기는 미정).



The screenshot shows the KHPA website interface. At the top, there is a logo for the Korean Health Psychological Association and a login section with fields for ID and Password, and a 'Log in' button. Below the header, there are navigation tabs for '학회', '학술지', 'e-Journal', and '알림마당'. The main content area is divided into several sections. On the left, there is a '최신발행학술지' (Latest Published Journal) section with a list of articles. Each article entry includes a title, author, and page numbers. On the right, there is a '학회소개' (Association Introduction) section with a plus sign icon. Below this, there are sections for '논문투고규정' (Manuscript Submission Guidelines) and '편집위원 소개' (Editorial Board Introduction). At the bottom of the page, there is a search bar with the text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and a 'Search' button. There are also icons for '논문제출' (Manuscript Submission), '논문심사' (Manuscript Review), '심사현황조회' (Check Review Status), and '논문검색' (Manuscript Search).

### (4) 제 50차 춘계학술대회 구두/포스터 발표 증명서 발급 안내

2015년 건강심리학회 제 50차 춘계학술대회에 참여하신 발표자 중, 구두/포스터 발표 증명서가 필요하신 회원은 다음의 절차에 따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1) 이름, 증명서 제출 기관명(예: 임상심리학회), 발표부문(구두 or 포스터), 논문제목 기입
- 2) [khpa2014@naver.com](mailto:khpa2014@naver.com)로 위 사항을 메일 발송
- 3) 사무국에서 확인 후, 증명서를 발급해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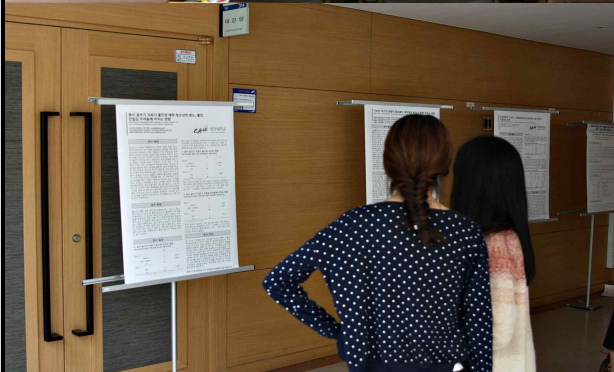
문의사항: 사무간사 홍혜인([khpa2014@naver.com](mailto:khpa2014@naver.com))에게 문의

# 학회 소식

## 제 50차 춘계 학술대회

- 일시 : 2015년 4월 24일 - 25일
- 장소: 중앙대학교

1일 차: 학술대회	
몸과 마음의 관계	
특강	정신의학자가 바라본 몸과 마음의 관계: 기분장애를 중심으로
	한의학자가 바라본 몸과 마음의 관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다각적 노력	
심포지움	국가차원의 재난심리관리 및 지원방안
	트라우마 치료를 위한 한국형 모델 탐색
	재난 현장에서 심리학자의 역할
2일차: 수련생 교육	
주제: 한국사회 도박문제와 건강심리학자의 역할	



◀ 춘계 학술대회 모습

## 연구회 소식

### 마음챙김-긍정심리연구회 4월 / 5월 월례회

#### ▶ 4월 월례회

- 일시 : 2015년 4월 29일
- 장소 : 덕성여자대학교 쌍문동 캠퍼스 차미리사 기념관
- 강사 : 최소양, 김미선(웰빙건강심리센터 연구원)
- 주제 : 마음챙김을 통한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 ▶ 5월 월례회

- 일시 : 2015년 5월 23일
- 장소 : 덕성여자대학교 쌍문동 캠퍼스 차미리사 기념관
- 강사 : 은희진(건강심리전문가)
- 주제 : 동기면담을 적용한 건강심리치료 사례: 베리아트릭 수술을 받은 29세 남성(사례발표)

※ 마음챙김-긍정심리 연구회 가입 문의: 간사 고은미 (mpa2014@naver.com)



#### 마음챙김-긍정심리 연구회란?

인간의 몸과 마음의 건강을 증진하는 방법으로 마음챙김 중재법과 긍정심리 중재법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습니다.

두 중재법을 개별적으로 다루기보다 함께 연구하여 둘 간의 관련성을 더 깊게 이해하고 상보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심신의 치유와 건강증진에 더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2014년 10월 '마음챙김-긍정심리 연구회'가 창립되었습니다. 마음챙김-긍정심리 연구회는 2014년 10월 25일 창립워크샵 및 강연을 갖고 2014년 12월 '불임에 대한 심리학적 접근'이라는 주제로 월례회를 가졌으며, 주기적인 월례회를 통해 회원과 소통하며 학문적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 마음챙김-긍정심리 연구회 6월 월례회와 남동부지회 8차 학술모임이 6월 중 각각 예정되어 있었으나 메르스(MERS)의 전염 확산에 따라 연기되었습니다.

## 회원 투고 (단편 소설) - 「간첩신고」

‘땀땀따라라~ 안녕하세요? 111 국정원 신고전화입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별표 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변씨는 화들짝 놀라서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변씨는 좋은 게 좋은 것 아닌가 하는 신념으로 살아왔지만 요즘 나라 돌아가는 꼴이 너무 어수선했다. 아무리 좋은 게 좋지만 날이면 날마다 시끄럽게 떠들어대는 메르스는 좀 달랐다. 뒤통수를 잡아 당기는 듯한 아슴프레한 불안감이 변씨의 귀를 쫓긋하게 세웠다. 연일 나오는 뉴스들을 귀담아 듣게 된 것이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 하지 않는가? 음압병실이니, 바이러스 변이니, 코호트 격리니 하는 어려운 말들이 많이 나왔지만 자주 듣다보니 이해가 되었다. 뉴스를 볼 수 있는 채널이 아홉개나 되니 채널만 돌리면 하루 종일 메르스에 대해 들을 수가 있었다.

정보가 모이면 모일수록 변씨의 머리에는 간첩이라는 단어가 떠올랐다. 많은 간첩들이 활동하고 있고, 그것도 각계각층에 퍼져 있다는 의구심이 불같이 일었다. 한번 의심스럽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자 새로운 의심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중동에서 한국 사람이 메르스에 걸린 낙타를 만지도록 한 것도 간첩의 소행인지도 몰랐다. 병을 옮긴 다음에는 낙타를 만졌다는 기억을 모두 지웠을 수도 있다. 빨갱이가 얼마나 무서운지는 어린 시절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다. 오비이락인지 몰라도 걸핏하면 남한을 불바다로 만들겠다는 협박을 일삼으며 동쪽이나 서쪽 바다로 미사일을 쏘아대던 북쪽나라가, 메르스, 사스, 조류독감, 에이즈까지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다는 주사약을 만들었다고 발표했다(메르스를 퍼뜨린 다음 약을 비싸게 팔려는 속셈인 것 같은데, 사실이라면 약을 팔아 벼락부자가 될지도 모르는 일이다).

수많은 괴담이 퍼지기 시작했다. 대통령이 메르스를 퍼뜨렸다(중동에 가서 낙타고기를 먹고 왔으니까), 정상적인 메르스가 아니라 미군이 실험실에서 만든 신종 생물학 무기다, 의학계에서는 메르스가 이미 대중에게 퍼졌다고 본다, 일반 마스크로는 안 되고 고글도 쓰고 다녀야 한다. 이런 괴담들이야말로 간첩들이 전형적으로 써먹는 심리전이 아닌가. 그런데 아무런 검증없이 이런 괴담들을 앞 다투어 보도하는 언론 덕분에 변씨와 같은 국민들은 더욱 혼란에 빠졌다. 책임회피 5인방에 보건복지부 장관을 포함시키더니 우왕좌왕 5인방에 대통령을 포함시켰다. 국민정서가 미개하다고 한 어느 국회의원 아들의 말이 생각이 났지만, 국민이 미개하다기 보다는 간첩들의 선동인 것 같았고, 언론사 내에도 간첩이 있는 것이 틀림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불안만 조장하는 이상한 보도를 할 리가 없지 않은가?

모 경제연구소 소장이 방송에 출연해 삼성이 무너지면 나라의 절반이 무너진다고 브랜드 가치가 하락하는 것이 더 크일 것이라고 열변을 토했다. 별일 아닌 걸로 유난을 떠다고도 했다. 변씨는 그 연구소장의 말이 맞기를 바랐다. 정말 별일 아니었으면 싶었다. 그룹의 후계자가 구십 도로 허리를 굽히며 대국민 사과까지 하는 것을 보자 짜증이 나기까지 했다. 냄비근성이라더니 왜 이렇게 유난을 떠는지 원. 그런데도 삼성을 보호하기는커녕 삼성병원을 욕하는 여론이 점점 높아갔다. 무슨 일이지? 삼성병원에서 정말 큰 일이 난 것일까? 자세히 알아보니 이유인즉슨 우리나라 종합병원 중 유일하게 의료와 경영을 분리하여 전문경영인을 사장으로 두었다는 것이다. 그게 뭐 어쩔단 말인가? 많은 병원들이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데 삼성병원은 경영을 잘 해서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않은가? 경영인에게 의학적인 지식까지 갖추라고 요구하는 것은 너무 심한 일이다. 사장은 백억 원을 들여 응급실을 리모델링했고 가장 많은 VIP 병실을 만들어 병원의 수준을 높였다. 음압병실을 만들지 않았고, 코호트 격리라는 것을 하지 않았다는데, 방호복이 부실했다고 하는데 사실 이런 일들은 국가가 해야 하는 일 아닌가? 시설을 갖춘 공공병원이 충분히 있었다면 국민들은 아무 걱정도 없을 터인데. 국가가 이런 준비를 하지 못한 것은 간첩들의 침투와 방해공작 때문이었을 것이다. 변씨는 그래도 정부를 믿고 싶었다.

하지만 유수의 보수언론에서 이런 보도까지 나오자 변씨는 혼란에 빠졌다.

- 우리나라에는 위기관리 컨트롤 타워가 없고,
- 골든타임이란 관계자만 도망가는 시간이며,
- 관료들은 무능하고,
- 대통령은 ‘이번 사건을 보면서 저뿐 아니라 국민들께서 경악과 분노로 가슴에 멍울이 지고 있습니다.’ 등의 유체이탈 화법을 구사하면서 쇼만 한다.

변씨는 자신의 의구심이 사실로 변해가는 것을 눈앞에서 보면서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친구가 격리조치를 당했다는 소식을 듣자 덜컥 겁이 났다. 괴담이 모두 사실이란 말인가? 간첩들의 작전이 성공한 것일까? 어쩌지? 변씨는 자신과 가족을 스스로 보호하는 수밖에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인생에서 처음으로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의사나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과 소방관들은 엘리베이터에 타지 못하게 하라고 관리실에 가서 호통을 쳤고, 병원 옆에는 가지 말라고 가족들에게 주의를 주었으며, 의료진의 자녀들이 손자 학교에 다니지 못하도록 해 달라고 교장에게 요구했다. 지하철을 타지 않고 걸어 다녔으며 하루에 열두 번도 더 손을 씻었다.

온갖 조치를 다 취한다고는 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갑자기 닥친 이 모든 혼란의 이면에는 간첩의 준동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떨쳐버리기가 어려웠다. ‘간첩은 노린다. 조심 조심 조심.’ ‘우리사회 곳곳에는 간첩과 좌익사범 및 국제범죄 사범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 신고를 해야 해. 간첩을 소탕해야 이 혼란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 변씨는 사명감을 가지고 간첩신고를 하려고 했다. 그러나 상담을 원하면 별표를 누르라는 녹음된 여자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이 또한 간첩의 소행이 아닐까 생각되어 수화기를 내려놓고 말았다.

저자: 이현신(삼육대학교 웰빙건강심리연구소)

## 회원동정 (수상)

김정애 회원(부산의료원)  
보건의 날 유공자 표창장 수상



### <건강심리학회 소식지 원고 모집 안내>

건강심리학회에서는 회원 여러분들의 소통과 정보 공유를 위해 매 분기 소식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제 13호 소식지에 실릴 원고를 모집합니다. 소식지는 여러분의 소중한 관심과 참여로 만들어지오니 많은 투고 바랍니다. 모집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 건강심리학을 비롯한 심리학 제반과 관련된 사설(칼럼)을 모집합니다. 주제는 자유롭게 선정하시면 됩니다. (한글문서 1장 분량)
- ▶ 회원 동정 및 홍보 사항을 모집합니다. 출판, 개원, 퇴임을 비롯한 사소한 소식이라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많은 참여 바랍니다. 개인과 기관 모두 참여 가능합니다.
- ▶ 기타 시, 수필, 사진, 그림, 평론 등 다양한 원고를 모집합니다. 주제는 자유롭게 선정하시면 됩니다.

작성하신 원고를 이름/소속/연락처와 함께  
건강심리학회 홍보부([jakim\\_psy@naver.com](mailto:jakim_psy@naver.com))로 보내주십시오.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